

특별기획

군산의료원 직영 2년만에 흑자로

지난해 당기순이익 11억 700만원 달성 전년 대비 35억원 증가

군산시, 주민세 현실화 추진

군산시는 1999년 이후 17년간 동결했던 주민세(개인균등분)를 오는 8월부터 1만 원으로 인상해 주민세를 현실화한다고 22일 밝혔다.

그동안 군산시는 매년 8월 읍면지역과 동지역을 구분해 주민세(개인균등분)를 부과해 왔으나, 지난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올해부터 읍면동 구분 없이 인상된 세액으로 부과할 예정이다.

주민세(개인균등분)는 매년 8월 1일 기준으로 재산상환이나 소득에 관계없이 관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인 개인에게만 부과하며,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치경비를 부담하게 하는 회비적 성격의 세금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주민세를 인상하더라도 기초생활수급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해 저소득층의 납세의무는 없다"며 "주민세 인상으로 인해 증가되는 세수는 시민의 복지 증진 등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소중히 쓸 것"이라고 밝혔다.

/군산=문정곤 기자

군산의료원(김영진 원장)이 직영전환 2년만에 흑자로 전환되는 경영정상화를 이뤄냈다.

군산의료원은 원광대학교 15년간의 위·수탁계약을 종료하고 2014년 1월부터 직영체제로 전환하면서 공익적 역할 강화에 나섰다.

그 결과 1999년 4억 8800만원 흑자에 이어 지난해 15년 만에 당기순이익 11억 700만원을 달성해 전년 대비 35억원(24억~11억)이 증가했다.

이는 군산의료원이 직영전환 후 '공공성은 최대, 의료 질은 최상, 경영은 향상'이라는 비전을 목표로 조직을 개편하고 전 직원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자는 일념으로 공공성 강화와 환자 중심성으로 거듭난 결과다.

군산의료원은 직영체제로 전환 후 수 의료진을 추가 영입해 의료의 질을 높여 전년대비 의료수익이 67억원(17.6%) 증가했다. 또한 의료수익 대비 인건비율은 3.3%, 재료비율 1.4%, 관리운영비율 1.2%로 26억 4700만원에 달하는 의료비용이 감소해 경영이 향상됐다는 평가다.

특히, 의료원은 2014년 11월 문을 연 '외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50병상'에 이어 지난해 7월 내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50병상을 확대 운영했다. 이를 통해 간병비 부담을 경감시키

고 입원서비스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한 결과 환자 및 보호자의 만족도가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환자 설문조사에서도 2015년 경영평가 만족도 결과 91.1점으로 2014년 80점에 비해 11.1점이 향상되는 등 지역주민들에게 최상의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전국적인 모범사례가 되고 있다.

군산의료원 김영진 원장은 "앞으로도 군산의료원에서는 도민의 기대에 충족하는 경영과 공공성을 추구하는 병원으로서 공익적보건의료서비스 시행 선도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군산=문정곤 기자

익산새일센터, 3D프린팅 디자인기능사과정 현장수업 실시

익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새일센터, 센터장 최경옥)는 지난 22일 3D프린팅디자인기능사 과정 직업교육생과 새일센터 관계자 등 25명이 참여한 가운데 일산 컨텍스에서 열리는 인사이트 3D프린팅 컨퍼런스 & 엑스포2016'에 방문하여 현장수업을 실시했다.

새일센터는 익산시가 3D프린팅산업 허브권 거점센터로 선정됨에 따라 전문기술을 겸비한 지역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으로 3D프린팅디자인기능사 과정을 4월 18일부터 6월 29일까지 진행한다.

3D프린팅디자인기능사 과정은 3D프린팅을 활용한 주얼리 디자인이나 초중·고등학교의 방과 후 3D프린팅 전문강사를 목표로 123D모델링, 라이노CAD를 이용한 주얼리 제작 실습

등 다양한 내용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참가자들은 3D프린트 스페셜존에 전시된 최대 56m 높이의 초대형 3D프린터 6대를 보고 기존의 3D프린터 보다 몇 배나 큰 규모에 압도됐다. 전문세션에서는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메디컬 분야의 최신 의료기술에 3D프린팅 기술을 접목한 다양한 시도와 성공 사례를 접하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또한 3D프린트 디자인쇼(3D Print Design Show)에서는 3D프린팅 기술로 제작된 금속 공예품, 가방 안경, 가구, 장난감, 신발 등 다양한 제품을 만났다.

직업교육생 유○○은 "3D프린팅은 생소하여 단순히 호기심으로 교육에 참여했지만 알면 알수록 매력적인 분

이다. 다양한 제품의 시연과 결과물을 보니 놀랍고 마음이 설레기까지 한다"고 했다.

최경옥 새일센터장은 "현장수업이 교육생들의 3D프린팅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를 높이고 최신 제품 및 트렌드 관련 정책과 향후 전망을 인식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직업교육생들의 현장수업을 통해 취업에 성공 사례를 접하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한편 3D프린팅디자인기능사 과정은 6월 29일 수료예정이며 교육생 채용을 희망하는 기관이나 기업은 익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문의전화: 1577-9701, 840-6582, 홈페이지 www.ilsanwomenwork.or.kr 참조)

/익산=장양원 기자

익산 춘포면 주민자치위원회 봉사활동

춘포면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정정구)는 22일 익산시 주민참여형 사업의 일환으로 식재한 춘포역사 해바라기꽃밭 잡초 제거에 구슬땀을 흘렸다.

이날 주민자치위원 및 공무원 30여명은 지난 4월에 심은 해바라기가 잘 자라서 많은 관광객들이 역사를 찾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봉사활동을 펼쳤다.

주민자치위는 춘포역사 인근 2,000㎡에 해바라기를 식재해 가족, 친구, 연인들이 사진을 찍으며 추억을 담을 수 있는 장소로 조성했다. 인근에 있는 호수기아농장(구 일본인 가족)을 같이 관리하고 만경강 제방 걷기를 하면 시원한 여름나기를 할 수 있는 안성맞춤 코스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익산=장양원 기자

군산시 농특산물 브랜드 '새들군산' 홍보 박차

군산시가 농특산물 유통 활성화 및 우수성 홍보를 통한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군산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인 '새들군산'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새들군산'의 본격적인 홍보를 위해 사업비 1000만원을 들여 이달부터 시내버스 및 택시 랩핑 광고를 실시하며, 공동상표 사용승인을 받은 농가 및 경영체를 대상으로 홍보용 스티커를 배부할 예정이다.

또한 품질향상 및 상품가치 증대를 위해 정기 품질관리와 지도를 통해 우수한 농특산물이 출하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를 할 방침이다.

현재 '새들군산' 상표 사용승인이 된 농가 및 경영체는 전년도 18개소와 올해 추가승인 된 4개 경영체를



포함해 총 22개 경영체이다.

한편 공동상표 신규 사용신청을 원하는 농가 및 경영체는 읍면동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신청을 하면 하반기 승인심사를 거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군산=문정곤 기자

군산근대역사박물관 한·중 국제학술세미나

군산근대역사박물관은 8세기 동아시아의 국제, 최치원과 양주 그리고 군산이라는 주제로 '한·중 국제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중국 양주박물관 쉬중원(徐忠文)관장의 '중국 양주시와 최치원'과 동북아최치원연구회 장일규 이사장의 '최치원 관련 유적의 분포와 송로'라는 주제로 발표된다.

박물관 관계자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군산 출생설화가 전해오는 최치원 선생의 중국에서의 평가와 연구동향을 확인해보고 당나라 최고의 문장가라는 명성을 떨친 문정후 최치원 선생의 발자취를 추적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군산=문정곤 기자



지난 18일 원광대학교 60주년 기념관 1층 아트스페이스홀에서 원광대학교병원(병원장 최두영)이 개최한 제6회 원광 심전도 심포지엄이 열렸다.

원광대병원 심전도 심포지엄 개최

지난 18일 원광대학교 60주년 기념관 1층 아트스페이스홀에서 원광대학교병원(병원장 최두영)이 개최한 제6회 원광 심전도 심포지엄이 열렸다.

이번으로 6회째를 맞이한 본 심포지엄은 권역내 의료인들을 대상으로 심전도의 기본에서부터 부정맥에 이르기까지 심전도에 대한 최신 지견들을 공유하는 자리다.

이날 심포지엄 1부에서는 고신외대 차태준 교수(심전도를 통한 심장정기활동의 이해), 전남의대 윤남식 교수(이상한 모양의 심전도를 심전도 형태 이상), 계명대 박형섭 교수(흉통환자를 심전도로 진단하기)의 연재 발표에 이어 제2부에서는 충남의대 김준형 교수(정상 QRS과 빈맥), 장성원 카톨릭대(비정상 QRS과 빈맥),

성균관대 박승정 교수(서맥성 부정맥과 심박동기) 등 국내 유수의 대학병원 의료진들이 심전도 진료에 있어 다양한 내용들에 관하여 연재 발표를 했다.

이어 마지막 3부에서 전남의대 고점석, 이기홍, 임지현 정태영, 김연경 교수가 "흥미로운 심전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토의를 벌이며 이날 심포지엄의 대미를 장식했다.

심포지엄을 주최한 원광대병원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측은 매해 열리는 심전도에 관한 심포지엄이 의료인들간 정보 공유와 의사소통을 통하여 지역민과 전북도민들의 심뇌혈관질환 예방 진단 치료 향상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김일재 행정부지사 군산수송동 주민센터 방문

맞춤형복지팀과 복지허브화 발전 방향 논의

22일 전라북도 김일재 행정부지사는 복지허브화 선도 지역인 군산시 수송동주민센터를 방문했다.

수송동 주민센터에 설치된 맞춤형복지팀은 생계가 어려운 가구 등 도움이 필요한 사각지대 발굴부터 찾아가는 복지상담, 통합사례관리 및 서비스 연계 등을 담당하고 있다. 이날 지난 4월부터 시작된 맞춤형복지팀의 업무추진과 관련해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복지허브화 관련 조직 및 인사 배치현황, 모델링사업 추진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향후 복지허브화 사업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를 했다.

김일재 행정부지사는 "매년 복지예산은 증가하는데 반해 복지 체감도는 여전히 낮은 편이다"며 "읍면동 복지허브화는 도민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는 데 있어 그 중심 역할을 읍면동이 하지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김일재 행정부지사는 "매년 복지예산은 증가하는데 반해 복지 체감도는 여전히 낮은 편이다"며 "읍면동 복지허브화는 도민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는 데 있어 그 중심 역할을 읍면동이 하지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김일재 행정부지사는 "매년 복지예산은 증가하는데 반해 복지 체감도는 여전히 낮은 편이다"며 "읍면동 복지허브화는 도민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는 데 있어 그 중심 역할을 읍면동이 하지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김일재 행정부지사는 "매년 복지예산은 증가하는데 반해 복지 체감도는 여전히 낮은 편이다"며 "읍면동 복지허브화는 도민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는 데 있어 그 중심 역할을 읍면동이 하지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군산=문정곤 기자

익산시 특화산업추진 상반기 일자리 7,096명 창출

익산시는 올해 상반기에 부서별로 특화사업추진을 통해 7,096명의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2016년 경제전망과 고용시장의 어두운 상황에서도 시는 올해 28개 부서 100개 사업에 1,409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9,815명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상반기에 73%를 달성하는 성과를 올렸다.

상반기 동안 기업유치 및 지원에 588명, 교육훈련지원에 68명, 여성·노인·장애인 취업지원에 3,871명, 기타 취업 취약계층에 2,571명의 일자리를 제공하여 서민경제 안정화를 꾀했다.

시는 하반기에도 사회적경제 활성화 등을 통한 지속가능한 일자리, 익산형 뉴딜일자리, 국내·외 우량기업 유치 등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등을 창출해 목표를 초과 달성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하반기에도 "시민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모든 부서가 힘을 모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원광대 원불교사상연구원 공동학술대회 개최

원광대학교 원불교사상연구원(원장 김도중)과 원불교 교정원 정책연구소는 24일 원불교 중앙총부 법은관에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한다.

교역자 인력수급에 관한 진단과 대안 모색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공동학술대회는 다가오는 미래에도 원불교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혁신이 필요하고 혁신을 주도하는 주체인 성직자 발굴 및 양성과정이 급변하는 시대 환경에 맞게 혁신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오후 1시 30분부터 시작하는 학술대회는 개회식에 이어 전문출신 현황

과 제도개선(고시용 원불교학과 교수), '재가교도의 역할 확대방안(박종주 원불교 중앙총부 명예교수)', '이웃종교의 성직자 양성 시스템 고찰(윤남진 NCO 리서치 소장)', '청소년 교화정책과 출가인재양성(최문범 교정원 교화훈련부 청소년국장)' 등 4개의 주제별 발표 및 질의가 이어진다.

한편 질의자로는 류길호 교정원 기획실장, 이근수 수위단원, 김은희 원광디지털대학 교수가 나서며, 마지막 순서로 백준홍 원불교정책연구소장이 좌장을 맡아 종합토론이 진행된다.

/익산=장양원 기자



고창군의회 GOCHANG COUNTY COUNCIL